

조드 일가의 교육: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다시 읽기

황 치 복
(전주대학교)

Hwang, Cheebok. "The Education for the Joads: Re-reading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217-239. This paper is a study on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in terms of religious symbolism and universal education. Up until now,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has been typically read as anachronistic social activism, sentimental Marxist fables, and being weakened Christian theology through failed preacher, Jim Casy. The religious interpretation of this work has also regarded the text at best as an allegorical reproduction of Exodus. However, since the Joads end the story not in the promised land but in the destitute place, such criticism requires complete rereading of this novel. Therefore, this novel is more meaningful if it is considered to be a reversal of Exodus. The Joads family move from a desperate but occupied promise land, Oklahoma to bondage of California. Through this extended image, Steinbeck shows a greater vision of material poverty teaching the Joads a broader Christian view of the world, a universal evolution from "I" to "we". (Jeonju University)

Key Words: John Steinbeck, Exodus, Biblical symbolism, universal education, brotherhood

I. 들어가며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은 1940년에 풀리처상을 받았지만, 그의 작품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는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인벡은 1962년 노벨상 수락연설에서 아마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계 문학은 “텅 빈 교회에서 그들의 기도를 노래하는 창백하고 감정 없는 비판적인 성직자들에 의해 공표되지 않았다”고 넌지시 말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잘 팔렸고 심지어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미국 대통령에 의해 옹호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언론인들은 이 작품을 “더러운 것”(Filthy)으로 조롱하거나(Wyatt, Introduction 2),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거부하였고, 심지어 판매 금지를 하거나 불태워졌다. 학자들은 또한 스타인벡의 작품을 “순진하고 감상적인 마르크스주의로 맛을 낸” 사회 행동주의 문학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Dougherty 226). 『분노의 포도』는 미국의 모더니즘의 현대적 추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진지한 논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Davis, Introduction 2). 1988년 자신의 선집에 대한 소개에서 헤롤드 블룸(Harold Bloom)은 스타인벡이 “독창적이거나 심지어 적절한 문장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교양을 가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꽤 지속적인 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스타인벡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헐뜯고 있다(4).

비평적으로 『분노의 포도』의 전성기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이었다. 그 당시의 논평은 이 작품의 풍부한 종교적 이미지를 구체화했다. 짐 케이시(Jim Casey)는 그리스도(Christ)의 인물로 해석되었고, 기독교적 암시가 소설에 나타났다. 구약성서의 주제가 톰 조드(Tom Joad)를 모세(Moses)로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조드 일가(the Joads)가 약속의 땅인 캘리포니아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프렌치(French)가 제시한 출애굽(Exodus) 모티프로 나타났다(Davis, Introduction 3). 이 소설에 대하여 유대교적, 기독교적인 혹은 심지어 “포스트-기독교적” 그리고 자연주의적이라는 일부의 분석들이 있었고, 일부 비평가들은 케이시의 믿음이 성서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에머슨(Emerson)의 대령(over-soul) 개념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타인벡은 작품이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느끼며 그러한 논쟁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비록 드 슈바이니츠(de Schweinitz)가 그 소설은 일종의 “헤브라이즘에서 기독교로 역사적인 통과”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종교적 해석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상징주의를 융화시키지 않았다(369). 추가적인 플롯 문제는 조드 일가가 소설에서 실제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물질적 상황은 모든 측면에서 더 악

화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여정은 속박을 향한 이동이었다. 캘리포니아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실제로 이집트로 읽힌다면,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이 구약 서사의 반전으로 인식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조드 일가의 시련은 그들에게 “마음의 교육”을 주는 방법으로 작용하고(French, “From Naturalism” 26), 반대방향으로의 탈출은 서술자 “나”에서 “우리”로 진화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의 반전은 유대교 법칙에서부터 공동체와 공유에 기초한 기독교적 도덕으로의 진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분노의 포도』의 상징성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은 작품의 집필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연되었다. 스타인벡은 오클라호마와 캘리포니아의 지대한 관심과 스타인벡이 조드 일가의 방언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오클라호마 동부에 존재하지 않은 동물인 로보 늑대(lobo wolves)를 소설에 넣었다고 비판했던 학자들에 의해 역사적인 부정확성으로 인해 비난받았다(Crockett 193). 스타인벡은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황진지대(dust bowl)의 난민들에 대해 글을 썼다. 실제 그는 난민 수용소인 위드패치(Weedpatches)를 방문하고, 홍수 동안에는 구호물자 배포를 돕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익명으로 글을 쓰기도 하였다(Howarth 78). 그에 대한 비판적인 치사는 노예제도 폐지에 큰 영향을 준 해리엇 비처 스토(Harriet Beecher Stowe)의 『앵클 톰스 캐빈』(*Uncle Tom's Cabin*)의 맥락에서 그의 소설을 사회 행동주의로 분류하게 하였다. 비슷한 문학적 견해를 가진 일부 비평가들은 케이스의 에머슨적 신념은 “신조, 도그마, 성찬식, 의식 그리고 유신론 자체가 제거된 것으로 기독교적이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Carlson 173). 또 다른 점은 해양 생물학에 대한 스타인벡의 관심사인데, 1940년에 그의 절친 에드 리켓츠(Ed Ricletts)와 공동 연구했던 논픽션 작품 『코르테즈 바다』(*Sea of Cortez*)를 탄생시켰고, 거기서 스타인벡은 “자연주의적 기반 위에 신비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제시한다(Ross 438). 이 소설의 종교적 상징성을 해석하는 것은 스타인벡의 문학적 목적과 아마도 그의 신념을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오클라호마와 이집트라는 정반대의 상징성이 조드 일가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유대적인 윤리로부터 기독교의 사랑과 형제애에 이르는 보편적인 전환의 패턴과 그에 따른 조드

일가에 대한 교육의 의미를 되짚어 볼 것이다.

II. 오클라호마와 이집트의 뒤바뀐 상징성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서 스타인벡의 의도가 반드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텍스트의 초기 버전을 파기하고 조드 일가 여정의 틀에서 서술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인벡은 본래 소설가였고, 그의 문학적 장치의 사용은 이성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낸 종교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우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믿음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종교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케이시는 기도할 수 없는 그의 무능함과 이단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한 목사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비현실적인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완성된 성격 때문에 부당하게 비난받는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난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예수처럼 광야로 나왔다”(421)¹는 그의 반복되는 진술로 케이시의 신앙 추구를 뒷받침한다. 이 소설에서 가장 동정심이 많은 인물 중 한 사람인 마 조드(Ma Joad)는 할아버지의 무덤(156)을 위한 성경 구절을 강조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며 여호아 숭배자에게 주장한다(354). “사람들을 경멸하는 듯한 딱딱한 표정의 광신자”(370)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 스타인벡이 신앙을 경시한다고 암시하지만, 그들의 죄는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자존심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들의 표면적인 예의에 대한 열광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마태오 15:8)는 이사야에 대한 언급을 통해 예수가 꾸짖는 바리새인들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스타인벡 자신의 정통성에 근거한 신앙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종교적 암시는 이 작품의 주제와 서술에 스며든다.

소설의 성서적 이미지가 단순히 자연주의적 시각에 풍미를 더하는 것과는 반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이 인식된 후, 소설의 오클라호마 부분에서의 결합된 성서적 이미지와 언급들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이러한 암시들은 오클

¹ 이후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에 대한 인용은 페이지로만 표기함.

라호마가 속박의 장소인 이집트가 아니라 조드 일가에게 약속된 땅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체성의 핵심은 섭리적인 소유권의 호소이다. 하느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라”(민수기 33:52)고 모세에게 말한다. 오키들(the Okies)은 비슷한 폭력으로 행동한 것 같다. 조드와 유다(Judah) 사이의 연계를 보는 것은 확장 아니다(Fonrenrose 79). 한 이주자는 그가 북아메리카 인디언 아파치족의 추장인 제로니모(Geronimo) 토벌전 때 신병이었다고 자랑하고(359), 또 한 소작인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개척했습니다. 인디언들을 죽이고 내쫓았다고요”(35)라고 말한다. “소유의 특질이 그대들을 영원히 ‘나’ 안에 동결시킨다”(166)는 것을 강조하는 화자가 토지에 대한 그들의 강력한 장악에 대해 오키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합법적인 관리에 대한 의식이 증폭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하느님은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었다. 너희는 씨족별로 제비를 뽑아 재산을 받아라. 큰 씨족에게는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작은 씨족에게는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저마다 제 것으로 삼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에 따라 재산을 받아라”(민수기 33:53-54)라며 그의 백성들에게 말한다. 오키들 또한 가족을 기반으로 한 토지분배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며, 버려진 집은 조드 일가와 맨리 일가(the Manleys)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 공유된다(29). 게다가 남아 있도록 허락된 외부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민수기 33:55) 것이라는 하느님의 경고는 존 삼촌(Uncle John)이 인디언을 개종시켜 집에 데려와 환대를 했지만, 집안의 비축량을 모두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 존이 갖고 있던 위스키를 먹고 타락하는 골치 아픈 인디언 이야기에 반영된다(437). 기본적으로 조드 일가는 하느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이 그들에게 즐거운 거주지인 “좋고 넓은 땅”(탈출기 3:8)이 될 것이라고 지시한 것과 같이 오클라호마를 집으로 인정하게 된다.

조드 일가는 “이 땅은 더 이상 좋지 않다”(50)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피터 리스카(Peter Lisca)는 1957년에 소설에서 출애굽 패턴을 본 최초의 비평가 중 한 명으로, 땅의 침식은 이집트에 닥친 재앙을 상징한다고 말했다(302). 리스카는 출애굽의 더 큰 이미지 패턴을 정확하게 보지만, 그 상징의 사용은 결함이 있

다. 모세는 파라오(Pharaoh)에게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너와 네 신하들과 백성들에게”(탈출기 8:17) 미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처벌이다. 다시 한 번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집짐승과 이집트의 집짐승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탈출기 9:4)라고 강조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둠을 경험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탈출기 10:23). 그에 비해 조드 일가는 그들의 농작물을 파괴하는 먼지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인간의 탐욕이 목화농사를 통해 토양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있지만, 스타인벡은 황진지대를 천벌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로 가뭄과 흉작의 전염병이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소설의 주인공들을 강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오키들의 농기구를 아주 작은 금액의 돈으로 제안하는 기회주의적인 거래상들은 사실 일반적인 불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비평가들은 은행들이 파라오의 힘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파라오가 요셉(Joseph)을 모르던 것처럼(탈출기 1:8), “파라오처럼 아주 무정한 변화된 경제 질서를 나타내는” 괴물은 조드 일가도 그들의 친족도 알지 못했다(Fontenrose 79). 그러나 다시 한 번, 그 비유는 소설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소작인들을 신속히 추방하기를 원하며, 이집트인들은 쓸모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드 일가는 그들의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자유를 꿈꾼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키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그 비교가 더 문제가 된다.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들의 물건과 보석들을 빼앗기는 반면에(탈출기 12:35), 소작농들은 그들의 재산을 청산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지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스스로를 손상시킨다(Fontenrose 79). 농장에 있는 물건을 전부 판 돈이 18달러밖에 되지 않았기에 조드 일가의 남자들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105). 전반적인 패턴과 이미지는 이집트와 오클라호마 사이의 동일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초기 장들의 애석한 어조, 특히 버려진 집들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보다 예레미야(Jeremiah)에 가깝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옥토가 사막이 된 것”(예레미야 4:26)을 탄식하듯이 오키들의 농장은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와 오키들의 경로는 방향에 있어서 정반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북동부 쪽으로 이동하고, 조드 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똑같은 정도의 위험을 겪는다. 조드 일가가 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자 모세에게 불평을 한다(출애굽 17:3). 두 여정 모두에서 길을 배회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도 생기고 사상자들도 생긴다. 국경 경비원들은 에돔 사람들(Edomites)과 같은 적대적인 부족을 연상시킨다(민수기 20). 두 그룹 모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약화된다. “트랙터 운전을 공부하겠다”(278)고 오클라호마로 돌아가겠다는 조드 일가의 사위인 코니(Connie)의 이기적인 이탈은 “빵을 배불리 먹던”(출애굽 16:3) 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배반하는 불평가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만나(manna)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처럼(신명기 11), 코니의 불신도 그를 파멸로 몰고 간다(Crockett 197). 마찬가지로 소설의 17장은 일종의 “오키의 신명기”(Crockett 197)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의 작용을 위해 하느님이 내리는 율법처럼, 엄격하지만 필요한 규칙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집단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의 실제 상황은 출애굽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모든 여행자들은 집단의 단합과 안전, 그리고 식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드 일가의 출애굽의 진행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진행은 다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퍼킨(Perkin)은 또한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이 “성서적 탈출기의 반전된 문헌”(an inverted reference of the Biblical Exodus)(86)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하느님이 반대자에 분노하여 그들의 자손만이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종잡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악의 상태에도 불구하고(민수기 14), 출애굽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점차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배불리고, 약속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통행이 거부되는 전투에서는 하느님의 손길이 주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조드 일가는 그들이 서부로 향하면서 점점 더 나빠진다. 그들의 여정의 첫 식사는 “완벽한 유월절 양고기와는 정반대인” 돼지고기이며, 그들의 식단은 비스킷으로 이루어진 한 지점에서 서서히 악화된다.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민수 14:37)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부패한 정탐꾼은 처벌되지만, 조드 일가가 만난 정탐꾼들은 불행히도 사실대로 캘리포니아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운을 기대하며 속고, 조드 일가는 임금에 속는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에서 이집트인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느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의 여정 내내 적대적인 적들에 맞서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반면, 조드 일가는 약해진다. 애리조나 횡단에서 그들은 약간 반항적이지만(221),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썸 톰은 워드패치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비굴하고 애처로운”(servile whine)(309) 모습을 취한다. 톰은 경찰들이 우리를 “매 맞은 강아지처럼 굽실거리면서 설설 기게”(308) 만든다고 화낸다. 소설 속 동물의 비유는 흥미롭고 조드 일가의 기어가는 동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지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대조된다. 소작농들이 사라지면서 버려진 애완동물들은 오키들이 점점 더 “적대와 적개심”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야생적이 된다(Griffin and Freedman 121). 나중에 마 조드가 “우리는 결코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았다”(238)고 말하고, 이주민들이 말들은 그들보다 더 귀중하게 대접받는다고 암울하게 말할 때 이 소설에서 최악의 순간은 늦게 나타난다(480). 조드 일가는 결국 헛간에 피난처를 갖게 된다. 이전에 “나는 동굴에선 자지 않을 것”이라고 물리(Muley)에게 항의했던 톰은 배수로에 피난처를 갖게 된다. 마 조드는 “사람들한테 코요테처럼 쫓기는”(82) 플로이드(Pretty Boy Floyd)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쫓겨 다니다 보니 기분이 아주 이상하네요. 내가 점점 못된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 같아요”(446)라고 말하기 때문에 플로이드의 이야기는 예언적이 된다. 점점 더 잔인해지는 이주민들은 점차적으로 더 야생적이 되었고, 파 조드(Pa Joad)는 나무를 얻기 위해 채집꾼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441).

모세는 느보산(Mount Nebo)에서 약속받은 땅을 보고(신명기 34), 마찬가지로 열두 지파를 따라 열두 명의 조드 일가는 높은 지대에서 캘리포니아를 바라본다(Lisca, “Achievement” 60). 거기부터 유사성이 줄어든다. 오클라호마는 처음에는 탈출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묘사한 것에 더 가까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전은 겉보기에 이집트와 더 비슷한 캘리포니아에 적용된다. 조드 일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소설을 시작하고 무일푼으로 소설을 끝내는 집안의 현실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Lisca 306). 퍼킨스가 지적했듯이, “이 소설의 움직임은 독립에서 노예로, 빈곤의 한 가운데서의 충분함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기아에 이른다”(91). 캘리포니아의 이미지가 풍족한 반면, 아이러니한 사실은 캘리포니아는 말 그대로 가나안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즉, 적어도 오키들에게는 먹거나 마실 것이 있기 때문이다(Levant 33).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기근에서 이집트로 여행을 한 다음(창세기 41), 숙박상태로 내려앉게 되었다. 농장주들은 “노예를 수입했다. 비록 노예라고 부르지는 않았다”(255)고 화자는 비난한다. 조드 일가는 떠날 돈이 없어서 “수입된 농노들”(imported serfs)(255)로 살아야 한다.

오키들의 동물화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태도와 딱 들어맞는다. 니들스(Needles)에 있는 주유소 직원들은 조드 일가에 대해서 “저놈들은 고릴라랑 별로 다를 게 없어”라고 말하며, 심한 편견을 갖고 행동을 하면서도 또한 이주민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은 오키들의 인간성과 “개개인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영향을 받는다(Bowden 21). 파라오는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많고 우리에게 너무 강하다”(탈출기 1:9)고 경고하고, 모든 남자 신생아들을 죽임으로써 일종의 종족의 도태를 명령한다(탈출기 1:16).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적대감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인들의 오키들에 대한 공포는 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이 이주민들은 “퇴폐적이고 성에 미친”(312) 사람이라고 불리며, “그들이 겁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놈들이 버티고 서서 같이 총을 쏘 대면?”(260)이라며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한다. 인간의 개인적인 차이는 거부된다. 모든 이주자들은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자스 출신이든 간에 인간 이하의 욕설인 “오키”라고 불린다(French 30). 그리고 그들은 “검둥이만큼 위험”하거나 심지어 방울뱀처럼 문명화 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된다(260). 이 억측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키들은 학교 교육과 같은 문명의 흔적을 얻는 것이 좌절된다. 이주민 아이들은 지역 학교에서 외면되고 출석을 못하게 한다.

이주민들의 거부의 일부는 거주에 대한 거부이다. 오키들은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항상 이동하기 때문이다(Heavilin, Reference 45). 이주민들은 오클라호마를 그들의 땅으로 여기는 반면에, 캘리포니아에서 그들은 잠재적인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외국

인 노동자로 취급된다. 이주민들은 성가신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과 부분적으로는 지역 감시자들에게 쫓겨나지만, 토지의 권리를 함축하는 단어인 농부가 아닌 단순히 “생산 수단”(a means of production)(Henderson 109)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강제로 유지하게 된다. 파라오의 행동은 비슷하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리시켜놓고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탈출기 1:14). 파라오에 대한 모세의 불만이 있는 후,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업할당량을 유지시키지만 벽돌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짚을 모아 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적이며 이방인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행동한다(탈출기 5:7-8). 캘리포니아 지주들의 행동도 동일하다. 그들이 어떠한 소속감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톱욕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주민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품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주민들의 임금은 점차 낮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당 25센트를 주겠다고 할 때 30센트를 달라고 하는 개자식들”(329)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한다. 동물적 속성(“bitch”)과 지배층과 열등한 이방인 사이의 강조된 구별, 그리고 이주민들이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가정된 이견에 대해 분쟁하는 방식 때문에 이 일화는 전하고 있다. 즉, 오키들이나 캘리포니아 사람들 모두는 시간 당 30센트를 원하고 있다(329).

소설이 끝을 향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이집트 사이의 이야기는 혼란스러워진다. 면화를 파괴하는 홍수에 신성한 “전염병”이 있지만, 다시 한 번 홍수는 캘리포니아인들과 이집트인들 그리고 이주민들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소설의 흐름이 구약성서의 연대기의 역행으로 해석된다면, 상징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조드 일가는 홍수가 방주까지 범람하자 트럭위에 임시 집을 만든다. 스타인벡은 대규모의 폭우가 쏟아지자 “물이 불어나면서 땅 위로 가득 차는 물”(창세기 7:18)처럼 소리를 내며 “산들도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일 수 없게 되자 산허리에 내린 비가 개울로 흘러내려 홍수로 변하기 시작했다”(477)고 언급한다. 나중에 하느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세우는 것처럼, 스타인벡은 “작은 새싹들이 땅을 뚫고 솟아나왔다”(480)고 언급하며 물의 이미지를 파괴에서

부활로 바꾼다(Matten 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상징성은 존 삼촌이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거의 도로까지 올라온 곳에 이르렀다. 길가에서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493)으로 헤치며 걸어, 물 위에 사산아를 놓아 둘 때와 미래의 모세를 데려가서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둔”(탈출기 2:3) 레위(Levite) 여인의 암울한 보복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 이 소설은 아직 그 끝에 있지 않지만, 성경의 서사적인 전도는 완전하다. 이야기는 황량한 약속의 땅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의 시작으로 끝난다.

III. “나”에서 “우리”로의 보편적인 진화

『분노의 포도』의 전반적인 서사의 틀은 신의 섭리로 이루어진 땅에서 박해와 속박의 이질적인 땅으로의 마지못한 여행인 출애굽을 뒤집은 것이다. 어느 정도 이 소설은 성서에 대한 가혹한 풍자처럼 읽힌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도 않았다. 하느님은 그의 백성들을 홀어버리고, 그들을 포기해서 죽게 만들었다. 때때로 중간장(the intercalary)의 화자의 목소리는 더 심한 몰락을 예측하는 카산드라(Cassandra)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 소설에 대한 불완전한 해석이 될 것이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말한 대로 스타인벡은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의 완벽함”을 믿는 사람이었다. 화자는 또한 거북이처럼 인간은 “일단 앞으로 발을 내디딘 후 뒤로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반 발짝 물러설 뿐이다. 결코 한 발짝을 온전히 물러서는 법은 없다”(164)고 예측한다. 프렌치는 화자가 예고한대로 이 소설을 “나”에서 “우리”로의 그들의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진보에 관한 근본적으로 조드 일가의 교육에 대한 것으로 본다. 즉, 『분노의 포도』에서 이 교육은 가족을 고립되고 자기중심적인 집단으로 여기는 한 가족의 질투에서부터 목사 케이시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영혼을 갖고 있어서 모두가 그 영혼의 일부”를 공유하는 한 광대한 가족의 일부로서 그 자체를 상상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초래한다(French, “From Naturalism” 26). 존 변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처럼, 이 소설은 조드 일가의 내적 의식의 변화만큼 호전적인 행동에

는 관심이 없다(Railton 34). 그러한 진보는 성경이 스타인벡의 특별한 해석에 부합하도록 강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에서 톰 그랫그라인드(Tom Gradgrind)가 그의 냉정한 실용주의를 버리고 디킨스의 감정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하듯이, 그것은 소설의 교훈이다. 한 비평가는 성경에서의 인간의 전체 역사는 조드 일가의 여정에서 재현되면서 이 소설의 맥락이 기본적으로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옮겨간다고 말한다(Hunter 41). 조드 일가는 부족의 이익에 토대를 둔 편협한 도덕에서 사랑과 나눔의 보편적인 도덕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화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스타인벡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것들은 혼돈스러운 반대이다. 즉, 소설의 서술구조는 구약성서를 통한 후진적인 움직임이지만, 주제의 진행은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에 이른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 반대는 단순히 역설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도덕적인 목소리를 반영한다. “나”에서 “우리”로의 인간의 진화는 긍정적이지만 고통스러우며, 그것은 자아의 실수와 좌절감 그리고 겸손함을 포함한다. 제자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교육의 한 부분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오 16:24)는 것을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마태오 6:21)고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분노의 포도』에서는 조드 일가에게 그들의 편협한 가족의 이익을 넘어 인류의 공유된 “우리”를 바라보도록 가르치는데 장애가 되는 조드 일가의 증가하는 물질적 더러움이 있다.

스타인벡은 “그들의 속됨을 꾸며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Railton 30), 그는 결코 오키들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드 일가가 주인공이지만 그 가족은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오만하고, 고립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French, “From Naturalism” 27). 트럭 운전사의 관대함에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응수한 뒤, 톰은 물리에게 “네가 깨진 유리 더미에 머리를 박고 싶어 한 대도 누가 널 말리겠냐”(49)고 오만하게 말한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마태오 19:20)라며 어떡하면 그가 완벽해질 수 있는지 예수에게 물어보는 젊은이처럼, 조드 일가는 자급자족에 기반을 둔 도덕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톰은 인신공격으로 인한 살인으

로 감옥에 있었고(Lutwack 73), 조드 일가는 피해자보다는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때때로 자신의 아이들을 굶게 하면서도 “저희는 자선 같은 건 받지 않아요”(349)라며 위드패치에 조이스 부인처럼 자선이 그들 수준에 안 맞다는 이주민들의 항언은 마치 비뚤어진 자존심과 같다. 가족의 존엄에 대한 마 조드의 고집은 “빌어먹을 오키들”(Goddamn Okies)(309)라고 불리는 불명예스러운 태도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지만, 때로는 그녀가 여성 위원회(Ladies' Committee)에게 우리 가족은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모든 가족들에게 씻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허풍을 보인다(333). 딸인 로저샐(Rose of Sharon)에게 “우리는 조드 가문이야. 우리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339)라며 말하는 마 조드의 가족에 대한 판단은 독선적이다.

조드 일가의 도덕적 규범과 히브리인들의 도덕적 규범 사이의 유사점은 아마도 외부인에 대한 상대적으로 유사한 태도에서 잘 볼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이방인들”(레위기 19:34)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라고 하느님에게 명령을 받는다. 사막의 땅에서 이방인을 접대하는 것은 모든 아랍 문화에서 중요한 신조이다. 심지어 그리스인들(the Greeks)조차도 제우스(Zeus)가 방문객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라고 명령했다고 믿었다(Heavilin, *Reference* 84). 하느님은 히브리 사람이 가난한 형제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신명기 15:8)고 명령한다. 오키들도 똑같은 규범으로 산다. 즉, 물리는 “먹을 걸 가진 사람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다면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52). 두 윤리적 체계의 제한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외부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고(탈출기 12:43), 이방인을 제외하고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느님은 경고한다(민수기 23:20). 존경의 말을 하더라도, 파 조드(Pa Joad)는 케이시를 “선생님”(sir)(78)라고 부르며, 케이시를 그의 가족과 여정을 함께 하는 것도 가족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친 후에만 이루어진다. 이주민들이 즉석에서 도로변에 캠프를 형성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공손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은 함께 지낼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 이주민은 다른 사람에게 “그 네 번째 텐트 아래 사람들은 아칸소 사람들이예요”(216)라고 말한다. 캔자스 출신의 이방인인 윌슨 일가

(the Wilsons)가 할아버지(Gram Pa)가 죽을 때 윌슨 일가의 새리(Sair)가 조드 일가를 위로한 후 확장된 가족이 되었을 때 조드 일가는 인생관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마 조드는 여전히 “목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the preacher wan't no kin)(156) 여전히 케이시 대신 톰에게 장례식에 사용할 글을 쓰라고 주장한다.

조드 일가가 그들의 도덕적 규정을 저버리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롭다. 율법(Torah)에서 하느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은 받는 것은 유월절과 신명기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성스러운 의식의 수행에 달려 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탈출기 21:24)을 명시하기에 엄격하고 확고하다. 존 삼촌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의 죄는 “죄와 부끄러움으로 그를 표시해주었다”(104).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용서나 속죄의 수단이 없다고 본다. 법에 따라 죽은 조드 일가는 전형적으로 이기적이다. 존 삼촌은 아내의 맹장염을 치명적으로 무시한 것 때문에 자신을 확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책감에는 일종의 성가신 자기애가 있으며, 그는 “그 집단체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Hunter 44). 마 조드는 이 움직임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적으로 생각하고, 그들 모두를 위하여 “조그마한 하얀 집”(little white house)을 원한다(98). 다른 가족들은 훨씬 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로저산과 코니는 그들의 태어날 아기에만 몰두하고, 노아(Noah)는 자기중심적으로 방황하며, 루시(Ruthie)는 크래커잭 사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한다(Hunter 44). 그램 파는 예외적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반항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호의적으로 묘사된다”(Ross 434). 스타인벡은 “말썽꾸러기 아이”(frantic child)(84)처럼 “이 모든 것이 재미있어서”(overlaid with amusement) 있는 대로 술을 마셔대고, 음식도 있는 대로 다 먹어 치우고, 잠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는 이 고상한 야만인을 묘사하는 재미를 분명히 갖고 있다. 아마도 그의 나이는 일종의 모세 이전의 제도에서는 그를 면제해 주었을 것이다. 새로운 서약으로의 변화는 짐 케이시에게서 시작된다. 그렇게 섬세하지는 않지만, 스타인벡은 이니셜이 J. C.이고 황무지에서 나온 후, 새롭고 위험스러운 가르침을 하는 설교자와 함께 12명의 가족은 여행을 한다. 톰은 케이시에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을 마을에서 쫓아낼 것”(25)이고

아무도 처음에는 그의 임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분노의 포도』에 대한 50년대와 60년대의 비평적인 글에서 아마도 대부분은 그리스도로서 케이시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몇몇 비평가들은 케이시가 불충분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케이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커다란 영혼을 갖고 있고”(24)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칼슨(Carlson)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정통적이지 않은 것을 교리라고 표기하는 것이 모호한 의미”라고 주장한다(173). 또 다른 비평가는 “어떠한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영하지 않는 그리스도적 인물(Christ-figure)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Dougherty 225).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너무 문자 그대로의 식별을 기대하는 것, 즉 독자가 케이시는 아람어(Aramaic)로 말하지 않는 것을 도허티(Dougherty)가 불평하기를 거의 기대하거나 또는 케이시가 천상의 도시로 조드 일가를 인도하는 단지 상징적인 유형이 될 그 소설이 일종의 『천로역정』이 되길 원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케이시의 성서적 상징은 스타인벡의 도덕적 주제를 대변하는 것이다. 짐 케이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너는 모른다”(426)는 그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레일턴(Railton)의 언급처럼, “자신의 몽둥이를 사용하여” 스타인벡은 가해자의 공범자가 “세상에, 조지”(Jesus, George)(426)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케이시의 상징성은 그 자체로 흥미롭지만, 케이시의 임무 또한 법의 범위를 벗어나 형제애를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신약성서의 약속으로 유대인 조드 일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가장 큰 영향력은 결국 제자가 된 톰에게 미쳤다. 쇼클리(Shockley)는 그리스도는 “토마스”(Thomas)라는 두 명의 추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89). 톰은 모세의 인물로 해석되어 왔다. 모세처럼, 그는 사람을 죽이고(탈출기 2:12),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모세가 성지에 서 있을 때와 같이 집에 돌아오면 그의 신발을 벗는다(탈출기 3:5; Dunn 567). 톰은 “술을 안 마실 정도로 경건한 분은 아니죠?”(20)라고 케이시에게 물으며 처음에는 케이시에 대하여 회의적이지만, 그는 점점 특히 케이시가 톰을 대신해 감옥에 가서 자신을 “희생할 때” 후자를 이해하기 시작한다(295). 톰은 답들이 우는 아침에 마치 베드로가 병

사의 귀를 잘라내는 것(루카 22:50)과 같이 케이시를 공격한 사람을 때리며 결국 베드로처럼 된다(429; Fontenrose 82).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돌레를 비친”(사도행전 9:3) 후, 땅에 엎어진 사울(Saul)처럼 톰 또한 몽둥이로 “마치 전기충격을 받은”(427) 이후 개종한 바오로(Paul)로 입혀진다. 의미심장한 것은 바오로와 톰 둘 다 병석에 누워 그들의 깨달음 뒤에 시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이다(Cannon 223). 그 경험은 마침내 톰이 케이시의 임무를 시작한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 28:20)는 예수의 말을 상기시키듯이,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때 마다 “제가 거기에 있을 것”(463)이라고 말한다. 톰은 자신이 케이시인 듯 하다고 말하며, 마 조드에게 “가끔은 케이시가 눈에 보이는 것 같다”(441)고 말한다. 마 조드는 톰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그에게 경고하지만, 진정한 제자로서 그는 죽음에도 복종할 용의가 있다. 순교자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톰은 진정한 사도적 지위를 얻는다(Cannon 224).

조드 일가는 처음에 케이시를 이해하지도 않고, 케이시가 그들의 식사를 축복할 때 “하아느님의 승니를 차냥하라!”(Pu-raise Gawd!)(88)는 그런 마의 자동적인 말참견으로 심지어 케이시의 말을 열심히 듣지도 않았고, 마 조드는 “내 평생 그렇게 이상한 감사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다”(101)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시와 톰의 결합된 활동과 그 여정의 시련은 점차적으로 “나”에서 “우리”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조드 일가에게 공을 들인다. 가족이 서부를 향해 여행하면서 톰의 분노는 지속되지만, 점차 그들의 경멸감을 상실한다. 주유소 주인이 “그냥 노래 같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139)라는 노래를 놀린 후에, 그는 그의 목소리를 식히고 주인의 상황에 대해 동정한다. 심지어 톰은 주인에게 불평이 많은 폐차장에 있는 외눈박이 일꾼에게 “바보 같은 소리”(ya full a crap)(197)라는 응수는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 돌 판을 내던져 깨버린 것(탈출기 32:19)과 그리스도가 환전상들을 혼낸 것(요한 2:15)처럼 정당한 분노로 의도된 것이다. 톰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한다. 그는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을 뿐”(190)이라고 투덜거리지만, 마 조드는 “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자신을 뛰어 넘었다”(389)고 느낀다. 마 조드는 또한 그녀의 가족이 월슨 일가와 합쳐졌을 때 그녀의 편협한 욕구를 넘어서 천천히 보기 시작한다. 조드 일

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케이시의 희망 때문에 가족회의를 여는 반면에, 이제는 힘을 합치겠다는 결정은 본능적으로 보인다. 두 가족은 가족으로 함께 하기 위하여 보통 귀중한 가보로 여기는 성경을 공유한다. 하지만 마는 “우리는 가족이다”(we’re the family)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we’re the people)(310)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톰과의 대화에서 뿐이다.

소설의 중간 장은 이미 스타인벡의 가치를 반영한다. 화자는 밤 시간에 “스무 가족이 한 가족이 되고,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들이 되었다”(213)고 말하며,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다”(사도행전 2:46) 만족해하는 어조는 초기 교회를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 공동체의 이러한 금분위제에 반대하는 조드 일가의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진행은 도표화될 수 있다. 조드 일가가 교만한 이기심을 만나는 소설에서도 그 반대가 딱 들어맞는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최악의 부역자중 한명은 “빨리 하루 3달리짜리 일을 찾아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라”(39)는 자기 잇속적인 변명을 반복하면서 소작인의 집 위로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애석하게도 코니가 임신한 아내를 버리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278). 케이시는 백만 에이커를 가진 “심술궂고 외톨이의”(mean an’ lonely) 재벌을 세리가 그램 파가 죽을 때 그를 위해 그녀의 텐트를 제공하는 즐거움과 비교한다(227). 이러한 도덕적인 병치는 또한 트럭 휴게소의 이야기에서도 가능한데, 이 이야기에서 고압적인 요구와 호텔에서 물건을 훔치는 부유하고 잘난 체 하는 “비열한 사람들은”(shitheels)(170)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행전 20:35)는 말처럼 빵을 사는 이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요리사와 여종업원 그리고 많은 팁을 주어 친절에 보답하는 트럭 운전자들과 대조된다. 예수 광신자들의 이야기들은 기독교에 대한 스타인벡의 반감에 대한 반향으로 읽혀졌다. 그러나 그것들은 조드 일가의 증가하는 관대함과 화자의 관대함에 비해 오래된 제도인 율법주의의 예로서 기능을 한다. 만약 그들이 정통 여호아의 증인이자라면 여기에서 예수를 찬양해서는 안 되며, 아마도 스타인벡은 여자 여호아의 증인이 “예수님의 감사한 말씀”(231)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실수를 한다. 그녀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녀는 마 조드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랜 마의 상황보다는 텐트 안에서 기도회를 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232). 스타인벡의 가장 강한 혐

오감은 아마도 “우리는 댄스 같은 건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로자샐과 마를 “지옥에서 불태워질 중죄인”이라고 부른 예수 광신자인 샌드리 부인(Mrs. Sandry)에 대하여 나타난다(354). 샌드리 부인은 화자가 이전에 언급했던 캠프의 간호사와 임신 지원 시스템과는 달리 로자샐을 돕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339). “오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은”(Okie Pharisees and Saducees)(Crockett 195) 경멸스럽게 춤추는 것을 지켜보며 “이 행사 전부를 비난하는 얼굴이었다”(370). 스타인벡은 믿음과 판단을 고백하지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마시게”(마태오 10:42) 하지 않을 사람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요한 1서 3:18)라는 말처럼 사랑은 실천되어야 한다. 중요한 시각적 이미지로서 예수 광신자들은 “하느님을 믿는 자”(378)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들의 의자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출애굽 이야기의 반전은 스타인벡이 신약성서를 윤리로 보는 것의 성과와 딱 들어맞기에 “나”에서 “우리”로의 변화는 소설의 홍수 장에서 최고조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조드 일가가 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준 것은 단지 물질적인 궁핍함에 불과하다. 앨(AI)은 화차의 칸막이를 없애고, “차 안의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다”(480). 파 조드는 비록 감사하지 않더라도 공동방위 차원에서 화차를 보호하기 위해 물에 대비한 독을 만들기로 한다. 스타인벡은 “우리 아기가 아니다”(486)라며 이 일을 돕는 것을 거부하는 한 남자와 비교한다. 이 위기 속에서 존 삼촌은 마침내 그의 무감각해지는 “죄”를 넘어서 참여하게 된다. 조드 일가는 “아무래도 우린 가난에서 헤어날 수 못하려나보다. 이게 다 내 죄”라고 말하는 존 삼촌의 침체에 점점 조바심을 내며 그에게 파 조드는 “그만 두세요”(shut up)라고 말한다(433). 그리고 존 삼촌은 또한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난 도망치고 말았을 게다. 이렇게 일을 안했으면 도망쳤을 게야”(487)라고 말하며 독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아기의 죽음을 초래하는 국가에 대한 그의 저주는 “죄에서 분노로 전환”(conversion from guilt to wrath)이 된다(Railton 43). 존은 자신의 도덕적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치유하는 대신에 술을 거절하는 쪽으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다(453). 그러나 아마도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전에는 가족이 찢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똑 같아요”

(use'ta be the family was fust. It ain't so now. It's anybody)(491)라는 마의 마지막 결론이다. 마 조드가 슬프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과 자선에 대한 그녀의 관념에 있어서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마태오 12:50)라며 가족은 혈연을 초월한다는 예수의 주장에 매우 가깝다.

IV. 맺는 말

이 소설의 마지막 사건은 출판 이후 논란과 상반된 해석을 불러 일으켰다. 로자샐이 늙은 남자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은 “극적이고, 악의적이며 감상적이고 저속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Burns 100). 스타인벡은 처음에 이 장면을 삭제하라는 출판사의 요구와 싸워야 했고(Heavilin, Reference 68), 그것은 1940년 영화 각색에서는 누락되었다. 로자샐은 성모 마리아나 심지어 여기에서 “이것은 나의 몸”(this is my body)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왔다(Shockley 89). 스타인벡 자신은 결말은 “빨리 이루어져야하고 아슬아슬한 클라이맥스는 없다”고 즉, “가슴을 내어주는 것은 한 조각의 빵을 주는 것 이상의 감정은 없다”(qtd. in Heavilin, Introduction 3-4)는 언급하며 그의 편지에서 결말의 의미에 많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자체를 요청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소설에서 강요된 주장을 불러일으켰을 임의의 실망스러운 결말이다(Levant 40). 하지만 그것은 이 소설의 도덕적 주제를 요약하는 늙은 남자의 예상치 못한 우연한 모습이다. 갑자기 강도 사건의 희생자를 만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루카 10), 가장 순수한 인간의 자선은 낯선 사람에게조차 거리낌 없이 주어진다. 늙은 남자에 대한 로자샐의 일상적인 사랑의 단순한 행위는 스타인벡의 평범한 묘사로 강조된다. “로자샐은 깃이불 한끝을 헤치고 젖가슴을 내놓았다. ‘먹어야 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501)에 사용된 이 어휘는 스타인벡의 중간장의 화자의 고조된 어조가 아니라 일상적인 어조이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마태오 25:5)을 실천한 그녀의 행위에서, 소설 전체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징징거리고 무력

한 아이였던 로자샐은 영적, 육체적 그리고 개인적 성숙에 도달한다. 스타인벡은 “두 여자는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고 말한다(501; emphasis mine; Gladstein 125).

역사적으로 조드 일가와 같은 이주민들은 전시에 공장들이 생기면서 캘리포니아 경제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었고, 과일 채집하는 일은 착취에 더욱 취약한 다른 인종으로 대체되었다(French, “What Became” 98). 그러나 이 소설은 역사적인 문서로 사라지더라도, 종교적 윤리에 대한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분노의 포도』의 성서적 상징주의는 단순한 오버레이가 아니라 조드 일가가 점차 사라지는 폐허가 된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외양을 가진 이집트로의 정반대의 탈출을 이행하지만, 이집트의 속박에 더 가까운 지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노예제도는 경제적인 용어로 체정되지만 그만큼 억압적이다. 결국 조드 일가는 흩어지고 빈곤해졌다. 하지만 이 소설을 절망적으로 보는 비평가들은 부유한 사람은 새리 윌슨이 그램 파를 위해 위로해주는 것만큼 결코 부유하다고 느낄 수 없다는 케이지의 언급으로 조드 일가가 더 훌륭하고 심오한 사람들로 발전했다는 점을 놓친다. 스타인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드 일가를 식별해 줄 수 있는 “우화적인 읽기”(allegorical reading)(Hunter 41)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아래 집단의 자기 합리화에 대한 유대적인 윤리로부터 기독교의 사랑과 형제애에 이르는 전환의 일반적인 패턴을 사용한다. 사실 그 발전은 성경에서 서서히 일어난다.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굳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이사야 1:11)고 진실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하느님은 불평하시고,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라”(이사야 43:9)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합의 자기성찰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화목을 지지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그 정서는 “예수 열광자”의 바리새주의의 흠잡기와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돈벌이에 급급한 이기심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조드 일가의 깨달음 사이의 새로운 거리에 반영된다. 조드 일가에 대해서 프렌치가 “마음의 교육”(education of the heart)이라고 부른 것과 헌터(Hunter)가 “관심의 확장”(widening of concern)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북이의 진보와 같이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목표를 향한 일련의 불완전하지만 의미있는 단계가 된다

(qtd. in Wyatt, Introduction 19). 성경과 마찬가지로, 『분노의 포도』는 너무 거대한 의미있는 이미지의 설명적이며 복합체로, 이 작품은 묘사되는 등장인물의 증가하는 영적 성숙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화자를 요구한다(Percy Lubbock, qtd. in Lisca, “Fiction” 300). 그들의 “괴상하고 관습화된 도적행위”(curious ritualized thievery)에 바쁜 악랄한 사업주들은 세상을 얻지만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된다(마르코 8:36). 반대로 스타인벡이 독자들에게 케이시의 교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단순히 케이시를 보편적인 형제애의 일반적인 신약윤리를 지적하는 인간의 결점을 가진 등장인물로 보든 간에, 조드 일가는 마지막에 영웅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로자샐은 축복받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502). 그리스어로 축복을 의미하는 ‘마카리오스’(makarios)는 정신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기쁨의 감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최악의 육체적인 환경은 마침내 그녀의 행복을 허용한다.

Works Cited

- Bloom, Harold. Introduction. *John Steinbeck* 1-5. New York: Chelsea House, 2008. Print.
- _____, ed.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New York: Chelsea House, 1988. Print.
- Bowden, Edwin T. “The Commonplace and the Grotesque.” Davis, *Twentieth Century* 191 (2006): 15-23. Rpt. of *The Dungeon of the Heart*. New York: Macmillan, 1961. 138-49. Print.
- Burns, Stuart L. “The Turtle or the Gopher: Another Look at the Ending of *The Grapes of Wrath*.” *Western American Literature* 9 (1974): 53-57. Rpt. in Davis, *Twentieth Century* 192 (2008): 100-104. Print.
- Cannon, Gerard. “The Pauline Apostleship of Tom Joad.” *College English* 24.3 (1962): 222-24.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Carlson, Eric W. “Symbolism in *The Grapes of Wrath*” *College English* 19.4 (1958): 172-75.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Crockett, H. Kelly. “The Bible and *The Grapes of Wrath*.” *College English* 24.3 (1962): 193-99.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Davis, Robert Con. Introduction.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 Studies*. New York: Longman, 1998. Print.
- _____,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The Grapes of Wra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Print.
- de Schweintiz, George. "Steinbeck and Christianity." *College English* 19.8 (1958): 369.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Doughterty, Charles T. "The Christ-Figure in *The Grapes of Wrath*." *College English* 24.3 (1962): 224-26.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Dunn, Thomas F. "*The Grapes of Wrath*." *College English* 24.7 (1963): 566-67.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Fontenrose, Joseph. "*The Grapes of Wrath*." In *The Critical Response to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edited by Barbara A. Heavilin, Westport, CT: Green, 2000. 71-86. Print.
- French, Warren, ed. *A Companion to The Grapes of Wrath*. New York: Viking Press, 1963. Print.
- _____. "From Naturalism to the Drama of Consciousness -- The Education of the Heart in *The Grapes of Wrath*." Davis, *Twentieth Century* 175 (2006): 24-35. Print.
- Gladstein, Mimi Reisel. "The Indestructible Women: Ma joad and Rose of Sharon." *The Indestructible Woman in Faulkner, Hemingway and Steinbeck*. Studies in Modern Literature 45. Ann Arbor MI: UMI Research Press, 1986. Rpt. in Bloom, *John Steinbeck* 115-28. Print.
- Griffin, Robert J. and William A. Freedman. "Machines and Animals: Pervasive Motifs in *The Grapes of Wrath*."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62 (1963): 569-80. Rpt. in Davis, *Twentieth Century* 188 (2007): 115-27. Print.
- Heavilin, Barbara A., ed. *The Critical Response to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0. Print.
- Henderson, George. "John Steinbeck's Spatial Imagination in *The Grapes of Wrath*." Heavilin. In *The Critical Response to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0. 99-117. Print.
- Howarth, William. "The Mother of Literature: Journalism and *The Grapes of Wrath*." Wyatt, In *New Essays on The Grapes of Wrath*. New York: Cambridge UP Press, 1990. 71-99. Print.
- Hunter, J. Paul. "Steinbeck's Wine of Affirmation in *The Grapes of Wrath*." *Essays in Modern American Literature*. De Land FL: Stetson University Press, 1963. 76-89. Rpt. in Davis, *Twentieth Century* 188 (2007): 36-47. Print.
- Jukyo Conference The Bible Committee. *The Bible*.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17. Print.
-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

- Levant, Howard. "The Fully Matured Art: *The Grapes of Wrath*."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A Critical Study*.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74. Rpt. in Bloom, *John Steinbeck* 17-44. Print.
- Lisca, Peter. "The *Grapes of Wrath*: An Achievement of Genius." *John Steinbeck: Nature and Myth*. New York: Thomas Y. Crowell Publishers, 1978. 87-110. Rpt. in Davis, *Twentieth Century* 192 (2008): 48-62. Print.
- _____. "The *Grapes of Wrath* as Fiction." *PMLA* 72.1 (1957): 296-309.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Lutwack, Leonard. "The *Grapes of Wrath* as Heroic Fiction." *Heroic Fiction: The Epic Tradition and American Novels of the Twentieth Century*.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1. 47-63. Rpt. in Davis, *Twentieth Century* 45 (1992): 63-75. Print.
- Matten, Colin G. "Water Imagery and the Conclusion to *The Grapes of Wrath*." In *The Critical Response to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0. 95-98. Print.
- Perkin, J. R. C. "Exodus Imagery in *The Grapes of Wrath*." *Literature and the Bible*. Rodopi Perspectives on Modern Literature 9. Amsterdam: Rodopi, 1993. 79-93. Print.
- Railton, Stephen. "Pilgrim's Politic: Steinbeck's Art of Conversion." Wyatt, In *New Essays on The Grapes of Wrath*. Ed. David Wyatt. New York: Cambridge UP Press, 1990. 27-46. Print.
- Ross, Woodburn. "John Steinbeck: Naturalism's Priest." *College English* 10.8 (1949): 432- 38.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Shockley, Martin. "Christian Symbolism in *The Grapes of Wrath*." *College English* 18.2 (1956): 87-90. *JSTOR*. Web. 2 Sept. 2018. Print.
- Steinbeck, John. *The Grapes of Wrath*. 1939. New York: Penguin, 1982. Print.
- _____. Banquet Speech. Nobel Prize Banquet. Stockholm. Web. 20 Sept. 2008. Print.
- Wyatt, David. Introduction. In *New Essays on The Grapes of Wrath*. Ed. David Wyatt. New York: Cambridge UP Press, 1990. 1-26. Print.

황치복 (전주대학교/교수)

주소: (55069)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메일: edm64@jj.ac.kr

논문접수일: 2018. 12. 27. / 심사완료일: 2019. 01. 30. / 게재확정일: 2019. 02. 07.